



[뉴스] 현대차-포스코 수소 생태계 조성 손잡았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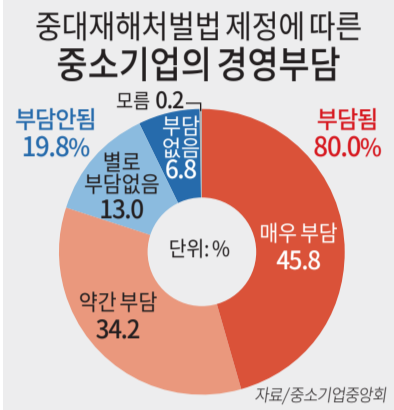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3163.23 (+16.25)	코스닥	977.74 (-4.23)
금리 (2년)	0.984 (-0.014)	환율 (USD)	1100.10 (-1.30) (16일)

중소벤처기업 2면

중소 80% “중대재해법 부담” 인력난 속 관리자 고용 어려워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500곳 조사 50% “시행되도 현 상태 유지” 10곳 중 4곳 책임관리자 없어 33%, 추가비 해결여부 불가능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가량은 법이 본격 시행되도 특별한 대응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력,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가 16일 발표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0%가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이라고 답했다. ‘부담안됨’(별로 부담없음+부담없음)은 19.8%였다.

50.2%(중복응답)는 중대재해법이 발효되도 특별한 대응 계획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답했다. 다만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 ‘안전 컨설팅 실시’

(14.6%),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13.8%)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안전보건책임 관리자가 없는 중소기업도 41.8%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이 가뜰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안전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고용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 제조업의 경우엔 67.1%가 안전보건 담당 책임자가 있었다. 하지만 비제조업은 37.3%에 그쳤다.

중대재해법 등으로 안전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나도 이를 해결하기엔 다소 역부족인 모습이다. 용역단가나 제품비용 등 납품단가에 안전

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기업이 76.8%였다. 10곳 중 8곳에 가까운 기업이 납품단가 등이 아닌 순수 자체 비용을 들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전보건 강화 조치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한 해결 여부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32.6%, ‘일부 가능하나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이 47.4%였다. 응답기업 중 20%만이 비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기업들은 또 산재사고 발생 주된 원인으로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7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애플카 위에 ‘삼성카’ 있다 三電, 스마트싱스로 쟁걸음

인포테인먼트 디지털 콕핏 이어 엑시노스 오토 공급 등 사업 속도

‘애플카’가 표류하고 있지만 ‘삼성카’는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일찌감치 투자한 플랫폼 스마트싱스가 핵심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일본 닛산과도 애플카와 관련한 협상을 중단했다. 애플이 협상 대상을 공급사로만 본 탓에 협상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관계자들은 애플이 자동차와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차량을 공급받아 자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만 탑재해 판매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폰이 AP와 소프트웨어인 iOS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 제품을 사용해 중국 폭스콘에서 조립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애플카가 출시된다고 해도 핵심 기능은 자체 커넥티드 환경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애플이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도 일찌감치 중단했던 만큼, 자율주행 역시 완성차사에서 공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젠가는 ‘갤럭시카’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기에서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콕핏’을 개발했을뿐 아니라 자율주행 등 관련 반도체인 ‘엑시노스 오토’를 공급하는 등 전장 부문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애플카가 소프트웨어만 애플 작품인 반면, 갤럭시카는 많은 부분을 자체 기술로 채워넣을 수 있다.

일단 삼성전자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 계획은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고객과 경쟁해야 하는데다가, 자동차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비밀목자금 신청하세요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소상공인 비밀목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청 안내를 도와주고 있다. 중소기업부는 이번 지급 대상 중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예약 후 접수처에 방문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고용창출 효과’ 벤처기업, 5.3만명 채용

(지난해)

코로나발 비대면 고용증가 견인 컬리·데이터클럽 등 채용 늘어

〈벤처기업의 2019년, 2020년 전체 고용 현황〉

구분	2019년 말	2020년 말	증가		기업당 평균증가
			증가	증가율	
전체 고용현황 (유효기업 36,885개사)	671,233명	724,138명	+52,905명	+7.9%	+1.4명 (18.2명→19.6명)

‘새벽배송’으로 잘 알려진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지난해에만 688명을 새로 고용했다. 1년새 기존보다 2배 가까운 인력을 뽑은 셈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중심으로 한 ICT서비스 회사 데이터클럽(33명→644명), 로보틱스를 만드는 프로보(23명→569명)는 지난해에만 각각 611명(1852%), 546명(2374%)을 새로 채용했다.

지난해 코로나발(發) 경기침체 속에서도 벤처·스타트업이 일자리를 5.3만개를 늘리며 ‘고용 버팀목’ 역할을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와 비대면 분야가 전체 고용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을 토대로 벤처기업과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 3만6885

개사(2020년 말 기준)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67만1233명에서 72만4138명으로 1년새 5만2905명(7.9%) 늘었다. 기업 1곳당 인원은 평균 18.2명에서 19.6명으로 1.4명 증가했다.

업종별 신규 고용 창출은 ICT서비스(2만1185명), 유통·서비스(9066명), 바이오·의료(4942명)가 눈에 띄었다. 이들 업종은 고용 증가율도 10% 이상을 기록했다. 1년새 1074명이 늘어난 영상·공연·음반도 11.8%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분야의 고용 증가세는 더욱 뚜렷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은 7430개사로 이들 기업의 고용은 15만2164명(2019년)에서 17만

5824명(2020년)으로 15.5%나 늘었다. 반면 대면분야 벤처기업은 같은 기간 고용증가율이 5.6%에 그쳤다.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고용 창출은 더욱 뛰어났다.

투자받은 기업 1730개사의 고용은 4만828명에서 5만3452명으로 1년동안 1만2624명 늘었다. 증가율은 무려 30.9%로 기업당 평균 7.3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전체 고용을 크게 늘리면서 든든한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중기부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도약과 회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노바백스 백신’ 국내서 독점 생산

SK-노바백스, 기술이전 계약

SK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주권을 확보했다. 글로벌 수급 변동성이 큰 완제품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NVX-CoV2373’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동시에 질병관리청과도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2면)

이번 계약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가 개발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및 허가, 판매하는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 또 질병청과 맺은 공급 계약에 따라 기술 이전

을 통해 생산된 물량 중 2000만명분을 국내에 공급하게 된다.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인플루엔자(독감),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 기존 백신에서 활용되며 장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합성항원 백신은 2~8도의 냉장 조건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1~3년까지 장기 보관도 가능해 유통 물량을 내면 이후에도 접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바백스는 영국 임상3상 시험에서 평균 89.3%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높은 95.6%의 예방 효과를 보고 영국 변이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각각 85.6%, 60%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